**교제와 나눔**

**\*\*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ㆍ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ㆍ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정했습니다:** 내면 참조

**ㆍBible12 제9강 ‘중간기 및 예수시대’:** 순연합니다.

**ㆍ매일성경3,4월호 받아가세요.**

**ㆍ기부금증명서 발부:** 백능현 집사

**ㆍ선교사편지:** 유초등부 어린이와 청년들이 12명의 선교사님들께 편지를

써 보냅니다. 선물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사랑으로 후원해 주세요.

**ㆍ귀가:** 강일구, 김종권, 이미전

**ㆍ생일축하:** 민경웅, 조영은

**◆말씀일기 일정**

일/막1:1-20 월/막1:21-34 화/막1:35-45 수/막2:1-12

목/막2:13-28 금/막3:1-19 토/막3:20-35 일/막4:1-20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73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3월 1일** | **3월 8일** | **3월 15일** | **3월 22일** |
| **예배기도** | 단주현 | 김아영 | 나지홍 | 신일수 |
| **말씀일기** | 오지훈 | 허지은 | 유근임 | 정수연 |
| **안내위원** | 신형만, 예배부 |
| **헌금위원** | 김종권, 박희영 |
| **애찬봉사** |  |  | 나라 주일 |  |

**37-9호 2020년 3월 1일**



 **“너는 내 것이라”** (사43:1)

주일예배: 12:00 Fliedner Saal

유초등부예배: 12:00 Teestube

청소년부예배: 12:00 Teestube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선교성경아카데미(MBA):

 잠시 중단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김요한 목사** HP. 0163-139 2225

**교육/ 이영환 전도사** HP. 0163-143 2804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가정 주일예배 (1. Fastensonntag)**

오

인도: 가족 중

|  |
| --- |
|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예배부름/Eingangsgebet 사58:6-9a |
| 찬송/Gemeindelied 27장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성시교독/Wechselwort 교독문124번 |
| 찬송/Gemeindelied 89장  |
| 기도/Gebet 가족 중말씀일기/Bibeltagebuch 가족 중찬양/Chor 가족 중 원하는 찬송 함께 부르기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대하7:11-16  |
| 설교/Predigt  **’내 얼굴을 찾으라’** (설교원고 낭독) |
| 찬송/Gemeindelied 415장 기도/Gebet 봉헌/Kollekte --- 교회 구좌로 송금, 혹은 모아서 나중에 전달 --- |
| 광고/bekantmachung주의기도/Vaterunser |
|  |  |  |

◀ **코로나19 대응 행동 지침** ▶

유럽에서도 점점 확산되어 가는 코로나19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직 임원회가 긴급히 의논하여, 우리교회가 현재상황에서 취할 몇 가지 행동 지침을 정했습니다.

가능한 직접 접촉을 삼가기 위해, 최소한의 기본 모임만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당분간, 토요기도회와 주일예배만 드리고, 예배 후에는 바로 귀가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이나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분들은 댁에서 예배드리시기를 권합니다.

2. 고국이나 해외여행 등을 다녀 오신 분이나, 한국에서 오신 지인 방문자들은 최소 2주이상 자가격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당분간, 외부 방문자들의 주일 예배 참석을 정중히 사절합니다.

4. 주일애찬 및 토요기도회 애찬 등 모든 식사 모임은 당분간 중지합니다.

5. 나라(구역) 모임 및 각종 소그룹 모임도 당분간 중지합니다.

6. 인사는 악수 대신 가벼운 목례로 합니다.

7. 각자가 몸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최대한 이동과 접촉을 자제하며, 기도 중에 사순절을 보냅니다.

그외,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함께 행동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재의 수요일

뒤셀도르프선교교회

**설교**-내 얼굴을 찾으라(대하7:11-16) 손교훈 목사

솔로몬은 힘을 들여 성전건축과 왕궁건축을 마쳤습니다.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왕궁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집-성전이 지어졌으니,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합니다. 다 이룬 것 같은 그 때가 제일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12**).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한 메세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당장에 후한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형통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ㅠㅠ 하나님은 조금 **인간적인 표현을 쓰자면**, 약간 밥맛 없는 스타일입니다. 솔직히, 아주 밥맛 없을 때도 있어요-양해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아, 한 주 내내 성전 낙성식을 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타이밍에 꼭 그런 말씀을 하셔야만 했을까 야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시죠. 성전을 지었어도, 왕궁을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가뭄이 올 수 있고, 흉년이 들 수 있고, 전염병이 범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냉정한 하나님**이 바로 진짜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허울 좋은 ‘성전주의’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때 솔로몬에게 이미 말씀해두셨던 것을, 유대인들은 자꾸만 잊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이 성전주의라는 껍데기를 허물기 위해 애를 쓰셔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소중했던 성전과 안식일, 즉 공간과 시간 개념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율법주의라는 껍데기를 부수려 애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공간과 시간은 곧 사람을 위한 공간과 시간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애초에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많이 벗어나 있었고, 예수님은 참 성전과 안식일의 의미를 회복시키려 거듭 기득권 세력들과 부딪히시다가, 그 껍데기 율법 수호자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가뭄과 흉년, 전염병 등이 크게 유행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은 말씀 그대로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물론 상황을 수습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하겠지만, 상황만 바꾸려 하지 말고 근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그간 살아온 삶의 양식을 살펴보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랑 통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야, 코로나19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이게 한국 사회를-삶의 방식을 많이 바꾸고 있다. 누군가 떠들었던 그 ‘저녁이 있는 사회’가 부득불 실현되고 있다….예배당에 그저 모이기 중심이었던 한국교회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당연히 **우리는**, 코로나를 빌미로 어떻게 해서든 정쟁을 부추기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과 소위 막가파식 종교인들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휘둘려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로 인해 한숨 짓는 선에서 대충 지나가서도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낡고 오염된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둘째**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곤고할 때, 어려울 때, 이럴 때에 자신을 겸허히 낮추고 성찰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전7:14**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약5:13**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지금은 최대한 우리 자신을 축소시키고-행동 반경도 축소, 마음도 하나님께만 집중하여-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하여 영원한 생명, 그 자유의 길로 인도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만하게 그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참 치료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암5:4-5a**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 벧엘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재난이 있을 때에, 불가항력적인 환경들이 계속하여 전개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길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성전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고 고백한 것 처럼 말입니다.

고국 땅에 특히 신천지로 인해 대구 지역에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이 급속히 증가해, 현지 의료인들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지요. 이때에 하나님의 얼굴과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이기에 갑니다”** 의사이기에 한 사람을 고치러 살리러, 휴가를 내고 자기 시간을 들여 가는 사람들. 광주에서 더 어려움 속에 있는 대구를 **돕기 위해 나선 사람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죄악과 욕심들, 하나님 자리에 올려 놓은 것들-돈, 명예, 지식, 자식, 건강 등-로 인해 하나님 얼굴은 희미해져버렸거나 완전히 가려져 버렸습니다. 그거 바닥으로 내려 놓아야 합니다. 아니 철저히 부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우쳐주시는 대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선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실 것입니다. “…듣고…사하고…고칠지라.” 이것이 ‘밥맛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국에는 밥맛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들어주십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우리의 간구-탄식을 들어주신다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이미 승리입니다. 구원입니다.

**2)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약5:15**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제일 못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죄인을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찾아오시고, 그 소리에 귀기울이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갖은 애를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애쓰고 수고함의 최고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롬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3)이 땅을 고쳐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 땅은 문제가 많으니 당장에 하늘 나라로 다 불러들이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새 하늘 새 땅의 약속은 막연한 먼 미래에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부터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미년 **3.1 독립만세 운동** **101주년**이 되는 바로 그 날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주권을 침탈당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신음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이 억눌린 땅을 고쳐주시기를-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분연히 일어섰던 지도자들 중 다수가 민족(백성)과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기독인들이었음을 다시 상기해 봅니다.

“백성이 고통당할 때 함께 아파하는 교회는 존경받습니다.” 엘살바도르의 고통 받는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했던 오스카 로메로 주교의 말입니다. **민족의 분단을 내 아픔으로,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조국의 전쟁같은 현실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오직 하나님 얼굴만을 찾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6b**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곳**이 주님이 계시는 진정한 성전-교회가 됩니다. 기도에 귀기울이시는 주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라도 반드시 세상의 칭찬-존경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